

단수이(淡水)

여행국가 중화민국(타이완)

여행도시 타이베이

여행기간

2019년 2월 9일 ~ 2019년 2월 13일



DANSUI

단수이 - 라오지에 - 홍마오청 - 진리대학 - 소백궁 - 여객터미널 - 단수이역

숙소에서 단수이 이동은 지하철을 이용 RED LINE 종점역이다. 역에서 내려 단수이 구시가지를 거쳐 위에 쓰여진 루트로 이곳을 구경합니다. 사진으로 보시지요.

역을 빠져나오기 전 단말기에서 이지카드 충전시도 잘 된다.

구시가지 구경부터



단수이 역





라오지에 입구에 서
 있는 이름을 알수 없
 는 나무
 예전 계림여행에서
 많이 본 나무같은데
 이름은 모르겠네요
 ~~











홍마오청





홍마오청(紅毛城, 홍모성)
 은 중화민국 신베이 시 단
 수이 구에 있는 사적이
 다. 원래 이름은 산토도
 밍고 요새로 본래는 스페
 인령 포르모사의 총독부
 였으나, 1642년에 네덜
 란드인의 소유로 넘어 간
 뒤로부터 중국어로 홍마
 오청으로 불리게 되었다.
 그 후 1867년부터 영
 국 영사관 및 미국 영사
 관 등으로 사용되었
 고, 1980년부터는 중화
 민국 총통부의 소유가 되
 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
 었다.







진리대학







진리대학 정문

소백궁

정식 명칭은 '전청 담수이 관세무사 관저'이지만 보통 하얀 건물 덕에 소백궁(작은 백악관)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. 옛 청나라 담수이 관세무사 관저로 사용되었던 건물로 19세기 서구 열강과의 접촉이 빈번해지자 서로 간의 무역과 교류가 생기게 되면서 생겨나게 되었다. 당시 청나라에는 세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적어 외국인들을 주로 고용해서 업무를 보게 했다고 한다. 새 하얀 건물과 예전 식민지 시절의 길이 잘 어우러지는 곳으로써 산책로로 주로 쓰이고 웨딩 사진 촬영지로도 인기 만점인 곳이다. 거기다 소백궁은 담수이의 바다와 경치를 구경하기 아주 안성맞춤인 장소다.





이곳에서 보이는 단수이강과 건너편 빠리구 풍경이 아름답습니다. 아무 생각없이 이곳에 몇 시간
씩 멍때리고 있으면 좋을 곳입니다.

거리의 악사는 데크 위에 오늘 공연을 준비중 입니다.

모 저 사 지 | 나 푸 구 오 기 역 아 기 오 나 | 모 저 사 지 | 나 오 — 모 오 나 기









여객터미널로 내려오는 길에 만난 벽화





스타벅스는 여러 곳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.





배고프다 길거리 음식과 맥주 한 잔 마시며 쉬어 갑니다.





단수이 일정은 마치고

열차로

베이터우로 이동하여

지열곡으로 ~~~